

보웬이론으로 본 기름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미분화 연구

김 영 미*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박사과정

배 시 은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박사과정

김 용 태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

초록

본 연구는 체계 속의 개인으로서의 사울과 그의 불안, 심리내적인 상태, 그리고 분화수준을 보웬이론으로 조명한 상담학적 연구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임상적 실제 사건인 사울의 이야기와 보웬이론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내 통합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 체계 내의 불안이 있었고 다세대 전수에 의한 사울의 심리내적 불안이 있었다. 둘째, 사울은 '작은 자'심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큰 자'가 되려고 하였다. 그 근거는 사울 자신의 이상화, '나'를 부각시킴, 자신의 수치심을 요나단에게 투사한 행동 등이다. 셋째, 사울은 "증상회복의 늦음"의 분화수준을 보였다. 넷째, 사울은 일시적으로 기능분화 수준에서 높음과 낮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사역자신자들에게 가족 내 심리적 주제를 인식할 필요와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외의 대상과 연합하여 해결할 수 없음, 그리고 일시적인 목표지향 활동이 진정한 영적 성숙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 책임저자

주요 단어들

사울, 자아분화, 통합, 융해관계, 보웬, 다세대전수

I. 서론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정치 군사적인 통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주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상 실패자가 되었다(Wiersbe, 1986). 이 실패의 원인을 신학자들은 사울 개인의 죄에서 찾기도 하지만(Henry, M. 1987; Harris, W. 1988; 강병도, 1990; 성주진, 1995; 장익중, 2004; 박길현, 2009; 임사무엘, 2009), 이스라엘 체계 내에서 찾기도 한다(Hanson, 1986; 이희학, 2002; 김성훈, 2002; 차재만, 2003). 사울의 불순종 문제를 삼상 15장 24절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사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위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사울에 대한 기존의 상담학적인 연구는 사울의 성격 유형이나 우울증, 정신분열, 경계선적 인격 장애에 대한 사울 개인의 정신 병리적인 해석 등에 초점을 두었다(이관직, 2005; 손진욱, 1991). 이 외에 사울의 문제를 체계적인 입장에서 상담학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신학 연구가 사울의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체계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체계의 관점으로 사울의 문제를 연구한 신학 연구들의 맥락을 같이하여 상담학적으로 미비한 체계의 관점으로 사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울 개인의 심리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체계 속의 개인으로 사울을 이해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보웬(Bowen)이론은 체계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이해하고, 또한, 다세대 간의 분석과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본다. 즉, 개인의 정

서적 반응성과 그 집단의 기능은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Papero, 2012, p. 88). 이런 의미에서 다세대 전수, 사회적 감정 과정, 불안할 때 주위환경에 반응하는 용해와 삼각관계 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보웬이론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체계 속의 사울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보웬이론을 통해서 임상실제인 성경인물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있었다(조난숙 외 2010; 최은영, 2012 등). 그 외에도 보웬이론의 개념을 이용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이미정, 2002; 김영덕, 2005; 김경희, 2005; 김판기, 2010; 허재호, 2010). 따라서 사울의 불순종 문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보웬이론으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성경 삼상 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울이 불순종 하는 변화 과정을 찾아보고, 이 변화를 상담학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통합적 방법을 이용한다. 통합의 방식에 대하여, 김용태(2006)는 학문 간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과 학문 내 통합(intradisciplinary intergration)을 설명하는데, 그 중 학문 내 통합은 하나의 직업이나 학문 내에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론적 내용과 임상적 실제 사이의 통합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성경 속의 사울 왕 이야기를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개념을 사용하여 새롭게 조명해보려는 노력으로, 이는 성경 속의 실제 이야기와 이론적 가정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학문 내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울에 대한 기존의 신학과 상담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고 보웬이론의 개념들을 설명한 후, 사울의 불안과 심리내적인 상태, 그리고 분화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기름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교회 리더들, 봉사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한 인간의 인격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사이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시사점을 말하고자 한다.

Ⅱ. 사울에 대한 기존연구

1. 신학적 연구

사울에 대한 신학적 연구들은 사울 개인의 죄에 대한 접근과 체계의 문제를 제시하는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죄 차원에서 사울을 해석하는 신학적 연구들은 왕이 된 이후 사울의 불순종, 회개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차재만, 2003; 김성은 2009; 이종진, 2004; 임사무엘, 2009; 박길현, 2009). 삼상 9장부터 3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삼상 9:21; 15:17)라 여기며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기쁨부음(삼상 10:1)과 새 마음을 받고(삼상 10:9),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교만한 태도로 점점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Henry, M. 1988; Harris, W. 1988; 강병도, 1990).

강성구(1995)에 의하면 사울이 실패한 원인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번제를 스스로 드린 점, 아멜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은 점, 신접한 여인을 만난 점 등이다. Wiersbe(1990)는 사울의 실패 원인을 그의 인내하지 못한 모습, 사무엘에게 거짓말 한 사건,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희생서약과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울이 다윗에게 드러냈던 시기심과 분노가 불순종과 사울 왕이 실패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장익중(2004)은 사울의 실패 원인에 대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조절 문제나 정서불안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울의 개인적 측면의 죄 또는 불순종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울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린 행동,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보다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강성구, 1995; 윤희구, 1990; 강병도, 1990). 둘째,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이다. 사울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하

나눔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임사무엘, 2009; 김성은, 2009). Keddie(1993)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뜻을 행했다고 믿고 있는 사울에 대해 자기기만의 모습이며 자기 정당화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최성수(2011)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중요시 하며, 사람들에게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울의 불순종 원인은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다(Klein, 2004). Henry(1988)는 사울이 다윗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장익중(2004)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넘어 이러한 분노 감정의 열증으로 자신의 기능을 잃고 관계 또한 파괴했다고 한다. 임사무엘(2010)은 사울의 태도에 대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있다.

사울의 죄 또는 실패의 원인을 체계의 문제에서 찾는 연구들이 있다. 이관직(2005)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생긴 '역기능 시스템'(dysfunctional system)의 희생자로서 사울을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울을 체계 내의 희생자로 보는 연구들은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즉,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에서 찾으면서 체계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한다(이희학, 2002, pp. 109-110). 국가의 행정기구나 관료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고, 각 지파들 가운데 실질적인 왕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Hanson, 1986, p. 53). 김성훈(2002)과 차재만(2003)도 사울을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과도기적 배경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새로운 왕정 정치제도 사이의 갈등의 희생자로 보았다.

체계 속에서 사울의 불순종 원인을 이해하는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 자체의 신앙 내부의 문제성(이희학, 2002, p. 89)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종교와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있었고, 종교의 정서 문제나 혼합주의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정이 진행되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장익중, 2004; 차재만, 2003), 이스라엘이 사울을 열방의 왕과 같은 왕

으로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는 시각이 부딪치면서 사울은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펴보지 못했다(김성훈, 2002). 둘째, 사울의 불순종 원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성주진(1995)은 '사울은 운명의 희생자인가'라는 그의 논문에서 폴진(R. Polzin), 건(D. M. Gunn)을 통해, 불순종의 죄 이전에 사울은 선택 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윗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에 희생된 비극적 인물로 본다고 설명한다. 폴진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호해서 사울을 거절했고, 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애매하게 명령을 전달해서 사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셋째, 사울의 불순종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조직의 미비에서 찾는다(차재만, 2003).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은 철기 문화 발달로 조직화된 군사조직과 신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군사적 전략도 없었다(이희학, 2002, p. 89).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제도와 과거 전통 간의 충돌 속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한다. 즉, 사울이 전통적인 야훼 전쟁의 원칙을 깨고 지파 동맹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희생제를 드린 것이 왕의 제의적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마찰을 빚은 것으로 해석한다(차재만, 2003).

위의 기존의 신학적 연구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이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떠한 불순종을 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울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왕이 된 후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흠 없이 드리는 일에 신경을 썼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장익중, 2004). 하지만, 왕이 된 후 어떠한 요인으로 사울이 불신앙으로 변하는지 그의 내면의 과정적인 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롱(B. O. Long)은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대신 백성의 소리를 들은 점은 잘못이지만, 사울의 행동보다는 그 동기에 대해 좀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성은, 2009).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동기를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상담학적 연구들은 사울의 불순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다.

2. 상담학적 연구

손진욱(1991)은 사울을 우울증, 합입형(Introjection type)성격, 그리고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사울은 그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상류 지주계급의 아들로 가문과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분위기 아래서 성장하였으며 미끈하고 흰칠하나 심적으로는 유약한 젊은 이라고 추측하면서 이런 상황이 우울증 환자의 어린 시절과 유사하다고 제시한다. 또한 종에게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우리 걱정을 하실 테니 그냥 돌아가자”고 하였으나 종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사울은 종의 말에도 순종하는 합입형 성격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사울에게 걸려있다고 전달할 때, 그 일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합입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윗을 사위로 삼는 장면이 경계선 환자의 특징인 투사적 동일시며,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양극단성, 충동성,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불안 및 과민반응, 그리고 부적절한 강한 분노와 분노 조절 능력의 결여 등은 그가 경계선 성격장애임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책망하는 사무엘의 행동은 이미 왕으로 내정된 사울에게는 이중구속명령(double-bind message)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사무엘의 양가적인 태도로 인해 사울은 더욱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들이 발현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관직(2005)은 사울을 세 가지의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울은 수동-공격성 인격 장애가 있었다. 수동-공격성은 그가 제비 뽑혔을 때 행구사이에 숨어있었던 모습, 그리고 일부의 비류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였을 때도 잠잠하였던 행동에서 수동적 또는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또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공신으로 다윗을 대우하기보다 오히려 라이벌로 의식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반사회성 인격 장

애가 있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울의 모습은 지속적, 만성적이며 죄의식이 결여된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제안하였다.

하늘(2009)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모습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시기하였고,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울의 시기심이 자신의 몸과 정신까지 망가뜨리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했다고 본다.

위의 연구들은 사울 개인의 병리적 진단이나 개인적 문제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로, 신학연구들이 제시한 체계 속에서의 사울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신학의 선행연구들이 체계 속의 사울에 대해 밝혔듯이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사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체계의 측면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개인을 둘러싼 체계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보는 보웬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사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보웬의 이론적 개념

1.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보웬 가족치료이론은 가족을 체계들의 일환으로 보며, 개인을 움직이고 기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힘을 감정으로 본다(김용태, 2000, p. 327). 즉, 보웬 이론에서는 개인의 감정적 행동들을 체계 속에서 발견한다.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체계를 감정체계라고 하는데 감정체계는 개별성과 연합성으로 이뤄진다(Kerr and Bowen, 2005, p. 87). 개별성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기능이며, 연합성은 집단의 일부로서 집단의 지시에 순응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려는 노력이다(Kerr and Bowen, 2005, pp. 87-88). 이러한 개별성과 연합성의 정도를 분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분화는 보웬이론의 핵심개념

으로 자아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김용태, 2000, p. 331). 가족은 “분화되지 않은 자아의 덩어리”로, 개인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가족의 감정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내는 노력과정으로 이를 분화라고 하며, 이것은 내부 또는 외부의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용태, 2000, p. 330). 분화되지 않은 자아의 덩어리 상태를 미분화라고 하며, 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즉,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밀착되거나 융해 또는 단절을 경험한다. 가족 내 개인의 성장에서 분화는 개인이 책임감 있게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apero, 2012, p. 95).

분화는 기본 분화와 기능 분화로 나누어진다. 기본 분화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기본 분화가 높을수록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한다(김용태, 2000, p. 332). 기본분화와 기능분화는 환경의 영향이나 불안이 높은 상황에 노출 될 때 목표 지향활동을 할 수 있는 지로 구별할 수 있고, 기본분화는 관계과정에 의존하지 않지만 기능분화는 관계과정에 의존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Kerr and Bowen, 2005, p. 125). 기본분화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높은 기능분화 수준의 목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불안한 상태에서는 원래의 분화 수준으로 낮아진다. 분화가 높은 사람은 진짜 자기(solid-self) 특성이 많은데, 진짜 자기란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다. 반면, 분화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따라가는 성향이 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목표를 쉽게 바꾸거나 따라가는 가짜 자기(pseudo-self)가 많다. 즉, 분화가 높을수록 지적 체계와 진짜 자기(solid-self)의 비율이 높아지고, 분화가 낮은 미분화 상태가 될수록 감정 체계와 가짜 자기(pseudo-self)가 높아진다(김용태, 2000, pp. 332-333).

김용태(2000, 334-336)는 분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였다. (1)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 (2) 가족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 (3)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유지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으면서도 그 집단이나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정도, (4)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얽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 (5) 불일치, 적대감, 소외에 직면하면서도 정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정도, (6)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7) 반사행동을 하지 않고 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이다.

2. 다세대간 전수

보웬이론은 한 개인의 기능이 개별적인 차이점과 다세대에 걸친 추세가 세대를 넘나드는 가족원들의 기능과 관련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이라고 여긴다. 이런 과정을 다세대 정서과정(multigenerational emotional process) 혹은, 다세대 전수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이라고 한다(Kerr and Bowen, 2005, p. 280). 이 과정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계승된 정서, 감정 그리고 주관적으로 결정된 태도,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수는 주로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가족체계에서의 불안이나 미분화 등은 각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 또는 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 세대에 걸친 기본 분화수준의 변화는 연속적인 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과 과정의 특별한 결합에 의해 영향 받는다(Kerr and Bowen, 2005, p. 286). 만일 개인과 가족의 분화수준이 높다면 삶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가족 전체의 불안이 증가하지 않고 생활사건에 적응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 있을지라도 가족정서체계의 균형은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분화가 낮은 가족일수록 삶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과 심각성이 증가한다(Kerr and Bowen, 2005, p. 291). 분화가 감소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내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 불안과 생활사건의 다양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불안이 증가할 때, 만성불안을 유발하는 기제는 더욱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더 다양한 만성증상과 생활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3. 사회적 감정과정

사회적 감정과정은 가족체계를 사회로 확대 시킨 개념으로 사회에서의 정서적 과정이 가족 내의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사회적 불안이 증가되고 확대되면 사회 집단 내의 분화 기능 수준이 낮추어지며 역기능이 증가하고 하위 집단끼리 융해되고 불신과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본다(송정아, 최규련, 1997, p. 207). 개인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독립된 생각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면 가족 내에서 분화 수준이 내려가게 되어 감정반사 행동이 많아지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김용태, 2000, p. 350).

또한, 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한 개인의 기능 분화에도 영향을 주는데, 한 개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치에 있을 때 불안을 경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치에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불안이 장기화 될수록 기능분화 수준뿐만 아니라 기본 분화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김용태, 2000, p. 350).

4. 감정반사행동과 불안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은 유기체가 불안에 의해서 보이는 행동이다(김용태, 2000, p. 351). 즉, 동물이 위협에 대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성보다 감정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행동이며, 불안이 증가하면 감정체계가 지적 체계를 압도하여 감정반사행동 역시 늘어난다. 감정반사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불안은 “실제나 상상의 위협을 인지하는 각성”(Papero, 2012, p. 88)이다. 이러한 감정반사행동은 자신이 행동한 후에 끼치게 될 결과들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Papero, 2012, p. 88). 분화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적 체계를 사용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분화가 낮은 미분화된 사람일수록 감정체계를 사용하여 감정반사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가족에서 부모의 불안은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흡수된다. 서로 의존적이고 밀착된 가족일수록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불안이 높은 사람들

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된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가짜 자기의 특징이고 감정체계의 특성들이다(김용태, 2000, p. 353).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강한 정서와 자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Michael, 2006, p. 117). 이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린 중요한 삶의 결정은 정서적 반응성에 의한 결정 즉, 감정반사행동이기에 보다는 좀 더 사려 깊은 사고와 분명한 원리인 지적체계에 따르는 지적반응 행동이다.

5. 삼각관계와 융해

삼각관계는 3인 체계의 역동적인 균형을 말하는데, 정서 체계의 기본 요소이며 가장 작고 안정된 관계 단위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다(Kerr and Bowen, 2005, p. 167). 두 사람 체계가 평온하면 그 체계는 오랫동안 안정적일 수 있지만 불안이 증가하면, 제3자가 두 사람의 긴장에 관여하게 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제3자의 관여는 삼각관계를 통해 이자 간의 확산된 불안을 감소시킨다(Kerr and Bowen, 2005, p. 168). 불안은 상호 맞물린 방식으로 다른 삼각관계를 전개하기도 한다. 특히, 안정된 상황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은 다른 여러 삼각관계 형성으로 확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분화된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또는 어떤 대상과 '동맹'을 맺지 않으며, 자신의 정서적 안전을 내부자들 중 한 명 또는 어떤 대상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분화가 낮은 사람은 불안을 다루기 위해 가짜 자기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융해 관계(Fused relationship)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다룬다(김용태, 2000, p. 353). 분화가 낮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동기화 되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큼인지 분명한 이해가 없으며, 어느 한 대상과 융해가 되어 삼각관계를 형성한다(Kerr and Bowen, 2005, p. 169). 융해 상태에서 개별성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떨어져 나올 때 죄책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웬은 융해된 감정체계에서 독립된 자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 객관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지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한다(김용태, 2000, p. 330).

IV. 사울의 미분화

필자들은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를 삼상 15장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는 사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사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음을 서론에서 언급했다. 보웬에 의하면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반응성과 그 집단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Papero, 2012, p. 88). 집단의 불안 강도는 개인의 행동이 감정에 지배되는지, 이성으로 지배되는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Papero, 2012, p. 88). 따라서 사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불안요소를 이스라엘 체계의 불안과 다세대 전수된 불안으로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불안 속에서 사울의 미분화된 모습을 분화수준으로 가늠해보고, 그럼에도 왕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잘 수행했던 모습을 기능분화 측면에서 분석하겠다.

1. 이스라엘의 체계 속의 불안과 사울의 다세대 전수된 불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철기 무기를 쓰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Peterson, 2007, p. 148).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무기를 갖고 있었고(삼상 13:22), 이스라엘의 군대는 잘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군사적 전략도 없었다(이희학, 2002, p. 89). 따라서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과 동시에 군사적인 불안 속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 불안이 많았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삼상 12:18; 13:6-7; 17:11). 이러한 불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의 노쇠로

인해 더욱 불안하여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하고 왕을 구한다(삼상 8:20; 강병도, 1990, p. 159).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의 요구는 이스라엘 국가 내에 불안이 있음을 말하고, 그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긴장상태를 야기했다(Longman, 2004).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행동은 백성이 세상의 왕과 용해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삼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사무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백성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장면이다. 주변국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안과 긴장 속에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의해 왕으로 뽑힌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시기였으나, 사울 왕은 주변 국가들처럼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리인 역할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 왕의 역할을 이미 모델링하고 다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으므로(삼상 8:5) 사울에게 세상기준의 강한 정치체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강력한 기대 속에서 사울은 백성의 불안과 긴장을 그대로 흡수한다. 이렇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적인 불안 속에 있었던 결과로 왕으로 세워지며 불안한 백성들과 용해되었고, 하나님은 소외된다. 강병도(1990)는 사울의 백성과 용해현상에 대해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다세대 전수된 불안이 있었다. 원용국(1995, 250-252)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사 19장~21장에 나타난 기브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족속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에 응하지 않고 열 한 지파와 3차례의 전쟁을 벌여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전력 면이나 수적으로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수로 베냐민 자손이 죄악으로 영혼이 죽어 스스로 죽음과 멸망의 길을 택

한 일이라 한다. 이 때, 첫 번째 베냐민과 싸운 족속이 유다 지파이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버림이 되고 무서운 사건의 장본인이 된 지파라고 하였다. 사울이 사무엘이 만났을 때,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기까지도 이러한 상흔이 남아있음을 알려준다. 힐퍼트(Hilpert, 2012)는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범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압도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삼상 28:4), 사울은 전쟁 자체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상의 유전과 인격이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원용국, 1995, pp. 250-252)),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불안이 사울에게 다세대 전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사울이 블레셋의 큰 군대 숫자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고조되며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연결된다. 또한, 불안으로 인해 사울은 다양한 삼각관계를 이루게 된다. 백성과 용해관계를 형성한 사울은 사무엘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백성과 용해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킨다. 삼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라는 구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였다. 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라는 삼상 15장 24절의 말은 사울이 왕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백성과 용해되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사울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 소개하며(9:21)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말에서 사울의 외모는 남들보다 ‘큰 자’였으나 심리적으로는 ‘작은 자’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용태(2013)에 의하면 ‘작은 자’의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큰 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볼 때 작고 초라한 느낌, 수치심을 갖

게 되는데, 그 느낌이 불안이나 두려움일 때 사람들은 특별해지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불안이나 두려움은 자신이 작다고 느끼거나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 특별해지려는 노력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더 거대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들을 발달시킨다(김용태, 2007). 즉,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작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덮는 행동을 한다. 덮는 행동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기능이 높은 활동을 하려하고, 의존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한다. 자신의 수치감을 들여다보는 일이 어려우므로 자신을 덮는 행동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한다(김용태, 2013). 이러한 수치심으로부터 슬픔, 분노, 절망감, 외로움 등의 감정이 생겨난다. 또, 자신을 드러내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투사를 하고 공격하는 행동으로도 드러낸다. 작은 자 주제를 가지고 큰 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라는 언급을 많이 하며, 큰 자에 대한 이상화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거나 때로는 다른 대상을 이상화하게 된다(김용태, 2013). 다른 대상을 이상화시킬 경우에는 그 대상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작은 자의 느낌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큰 사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웬은 가짜 자기로 설명한다. 가짜 자기는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훨씬 또는 덜 중요한 척, 강인한 척, 매력적인 척 등을 하는 ‘가장된’ 자기다(Kerr and Bowen, 2005, p. 133). 가짜 자기는 미분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모습이다(Kerr and Bowen, 2005, p. 131).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삼상 9:21) 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가 가지는 수치심으로 가짜 자기의 모습을 활성화시키는, ‘큰 자가 되려고 했다.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상화시켰다.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불안했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왕의 역할과 왕의 지위를 이상화시키며 용해되었을 때, 사울 역시 그 용해관계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이상화한다. 자신을 이상화시킨 결과로 역할 혼돈이 왔으며,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를 드리게 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 인식을 갖도록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삼상 13:11),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삼상 15:17) 등의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은 이 질문을 통찰과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비난으로만 인식하여 변명을 한다. 자신을 큰 자로 보이려는 이상화로 사울은 회개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가 나오고, 책임을 사무엘과 백성에게로 전가하였다(삼상 15:15~21; 원용국, 1995). 최성수(2011)는 사울이 사람들에게 유능하게 보이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을 중요시했다고 하였다.

둘째,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말 들 속에 ‘나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후 사무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자 사울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려”, “내가 여호와께” 등 삼상 13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 ‘내가 5회 등장한다. 작은 자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울은 마음에 수치감이 있어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숨기고자 하면서 ‘나를 부각시켰다.

셋째, 사울은 자신의 수치감을 아들에게 투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다윗을 보내준 요나단을 향해 화를 내며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삼상 20:30)고 한다. 사울은 자신의 수치심을 심리 내적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수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외부 대상인 요나단에게 쏟아놓았다. 또한, “할례 없는 자가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삼상 31:4) 스스로 죽는 장면에서 사울은 자신의 수치심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사울의 기본 분화 수준

분화수준은 크게 4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김용태(2000, 334)는 가장 낮은 범주인 0-25는 만성증상, 25-50은 증상회복 늦음으로, 50-75는 약한 목표지향활동, 75-100은 강한 목표지향활동으로 설명한다. 앞의 두 범주는 미분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김용태는 25-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

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1) 감정체계에 의해 삶을 살아간다. (2) 감정에 의한 융해관계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한다. (4)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 (5)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감정반사행동을 한다. 이상에서 사울은 분화수준이 “증상회복 늦음”에 해당한다.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울은 감정체계에 의해 삶을 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다세대 전수되어온 불안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삼상 15:24),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으며(삼상 17:11),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보며 두려워했고(삼상 18:12; 18:15; 18:29),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떨리고(삼상 28:20), 신접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경고로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다(삼상 29:20).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울의 두려움과 그에 따른 행동은 지적체계보다 감정체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둘째, 사울은 감정에 의해 융해관계가 생기는 경향이 있었다. 삼상 15장 15절에서 사울은 백성들과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편으로 표현한다. 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다는 삼상 15장 24절의 사울의 말 역시 두려움에 의해 백성들의 의견에 동조했음을 보여준다.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덜기 위해 다른 대상과 융해되는 모습이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융해되어 개별성이 없이 행동한다.

셋째,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나라를 주었다”(삼상 15:28)고 말할 때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30)라고 부탁한다. 사울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는 모습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울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였다. 신접한 여인을 찾

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는 모습이 그러했다. 그리고 확신의 부족은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후 먹게 하는 사건(삼상 14장)과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다가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행동(삼상 18장과 25장), 다윗을 살려주며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추격하는 장면(삼 26장) 등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다.

다섯째, 사울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감정반사행동을 보였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노래에 사울은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감정반사행동을 하였다. 또한,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왜 죽이려 하냐고 편을 들자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삼상 20:30)라고 하며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분노를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정반사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울은 “증상회복 늦음”의 분화수준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인다. 분화수준 25이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을 거의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울은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등(삼상 14:47)으로 일상생활을 유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범주 50-75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융해를 보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체계의 영향을 받는데, 사울의 행동은 일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왕으로서 범주 50-75의 목적지향적 행동을 성취하는 행동이 있고, 더 낮은 25이하의 수준의 만성증상을 보여주기 도 하는데, 그 부분을 기능분화로 분석해보겠다.

4. 사울의 기능분화

사울의 기본분화는 “증상회복 늦음”상태인 25-50 수준이었으나, 때로는 50-75의 분화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특징을 보였고 반대로, 0-25 수준의 행동특징을 나타냈다. 이런 행동은 기본분화라기 보다는 기능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증상회복 늦음”의 사람들은 불안이 낮은 상황 또는,

일 중심적인 상태에서는 높은 목표지향 활동을 할 수 있다(김용태, 2000, p. 332). 사울이 높은 분화수준의 사람처럼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했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엘과의 만남 후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사울은 사무엘과 나눈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 불안에 압도되거나 다른 대상과 융해되지 않고 목적지향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되게 행동하는 예이다. 둘째, 사울은 백성들 사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하는 소리에 잠잠히 있었다. 자신의 감정이나 주위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목적지향적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소를 몰며 농사를 짓던 중에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한 일(삼상 11:1~11)은 “네게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삼상 10:6~7)는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고 지적체계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아차렸다. 넷째, 왕으로 추대 될 때에 “어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는”라고 자신을 조롱했던 불량배를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감정반사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행동을 보인다. 다섯째, 각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다(삼상 14:47).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믹마스과 아말렉 전투 등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는 장면에서 사울은 자신의 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분화가 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기능분화로 이해된다.

반대로, 사울은 높은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 기능분화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분화수준 0-25 범주인 “만성증상”의 특징들을 보인다. 대표적인 행동의 예는 첫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살며, 정서적 단절이 일어난다. 아말렉 사건 이후 사무엘과의 정서적 단절이 일어나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삼상 22:8)는 말로 자신의 고립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

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삼상 28:5-6)라고 하나님과도 관계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사울은 강한 융해관계를 갖는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시고 사울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말(삼상 13:14; 15:26)에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고조되고, 이때 더욱 백성들과 융해되어 다윗, 사무엘과 각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삼각관계도 형성한다. 셋째, 다윗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불안이 더 높아졌고, 다윗을 향한 살인적 분노(삼상 18:10, 17, 25; 19장~26장)로 감정반사행동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불안을 경험한 사울은 죽음을 선택한다. 사울의 죽음은 만성증상의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을 찾기 어려워 일상생활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융해 관계를 대처하기 위해 감정 단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조기 죽음과도 같은 증상을 발달시킨다(김용태, 2000, p. 349).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할까 두려워 스스로 자신을 찌른다(삼상 31:4). 이러한 모습들이 사울의 기능분화가 낮아졌던 “만성 증상” 수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신화연구들의 한계와 상담학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신학적 연구가 주로 죄와 사회체계에 대한 내용이고 상담학적 연구들은 주로 심리내적 연구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리사회 관점에서 신학적이면서 상담학적 연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심리사회적 측면의 연구는 보웬이론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원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기에 이스라엘 체계 내에 불안이 있었고, 다세대 전수에 의한 사울의 심리내적 불안이 있었다. 둘째, ‘작은 자’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울은 내면의 수치감으로 ‘큰 자가 되려는 갈망으로 자신을 이상화했다. 셋째, 사울은 “증상 회복 늦음”인 25-50의 분화수준이었다. 그 근거로,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으

로 지적체계보다 감정체계에 의한 삶을 살았고, 백성들과 융해하려는 삼각관계를 보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주위의 인정이 없을 때 공격행동 등의 감정반사행동을 보였다. 넷째, 사울은 일시적으로 기능분화수준에서 높아지기도 하였고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울의 기본 분화 수준은 변화가 없었고, 장기간 지속된 불안으로 인해 끝내 정서적 단절로 생을 마감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교회의 리더들이나 믿음이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원가족과 연관시켜 다세대적 통찰을 얻고 과거로부터 현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인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 리더들이나 교인들은 자신들이 존재로서 '작은 자'임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큰 자'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회피의 수단으로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융해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 믿는 자들은 교회의 봉사나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모양을 갖춰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즉, 딤후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은 경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성경 속 인물인 사울을 체계적 관점의 보웬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삶과 믿음의 통합을 이루는 일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상담학 이론으로 성경 속 인물을 살피는데 있어서 주어진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 연구자와 직접 만남으로 얻은 자료가 아닌 성경 저자가 기록해 놓은 자료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저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적으로 임상자료로 얻을 수 없었다.

참고 문헌

- 강병도 (1990). **호크마종합주석 7 사무엘상 사무엘하**. 서울: 기독지혜사.
- 강성구 (1995).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하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경희 (2005). **보웬가족 이론으로 본 다윗가족 사례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서울.
- 김성은 (2009). **신명기 역사의 흐름에서 바라본 사울과 다윗**.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 김성훈 (2002). **사무엘상 8-12장의 통일성 및 사울 등극기사(9:1~10:16)의 위치와 역할**.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서울.
- 김영덕 (2005). **가족치료를 위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보웬 가족치료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용태 (2000).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07). 초월의 기초로서 실존주의 심리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 100-125.
- 김용태 (2013). **햇볕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박사과정 세미나 수업**.
- 김판기 (2010). **보웬가족치료에 기초한 가족관계 중심적 목회상담**.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길현 (2009). 사울의 선택과 바려짐-사무엘상1~15장까지의 맥락에서. **진리와 학문의 세계**, 20, 25-46.
- 박종철 (1990). 구약강해/사무엘 2-사울왕권의 실수와 버림당함. **고신**, 101(2), 96-101
- 성주진 (1995). 사울은 운명의 희생자인가? 사무엘상 15장 해석. **신학정론**, 13(2), 256-284
- 송정아, 최규련 (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손진욱 (1991). Saul왕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0(4),

768-775

- 오국현 (2007). **정서체계의 다세대 전수과정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논문.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윤희구 (1990).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 서울: 예루살렘.
- 원용국 (1995). **사무엘주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관직 (2005).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미정 (2002). **보웬가족치료 이론의 기독교 가족상담에로의 적용**.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 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서울.
- 이종진 (2004). **사울, 다윗의 왕위 계승과 왕국의 특징에 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전.
- 이희학 (2002).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임사무엘 (2009). **사무엘상 15장의 문예적 분석을 통한 사울의 버려짐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 장익중 (2004). **사울왕국의 탄생과 몰락에 관한 역사 신학적 고찰**.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대전.
- 조난숙, 송조흠, 한영혜, 최은영 (2010).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99-326.
- 주제별 설교대사전 편찬위원회(편) (1984). **주제별설교대사전 3**. 서울: 아가페.
- 차재만 (2003).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의 비교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전.
- 최성수 (2011). 기질로 본 성경의 인물들(5). 다섯 번째 만남: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고통당한 사울 왕. **기독교 교육**(5), 114-118.
- 최은영 (2012). 보웬과 룯기신학. **목회와 상담**, 19, 188-218.
- 하늘 (2009). **시기심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허재호 (2012). **기독교청년의 자기분화가 영적 성숙도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서울.
- 헤세드 종합자료시리즈 편찬위원회(편) (1991). **사무엘상: 헤세드 종합자료 시리즈**. 인천: 임마누엘.

- Harris, W. (1988). **베이커 성경주석**. 서울: 기독교문사.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Hanson, P. D. (1986). **성서의 갈등 구조-신학적 해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원전은 1982년 출판)
- Henry, M. (1988). **매튜헨리 주석 시리즈(9) 사물엘 (상)**. 서울: 기독교문사. (원전 1961년 출판)
- Hilpert, T. (2012). **Saul's Final choice**. Revth.wordpress.com
- Keddie, G. J. (1993). **사무엘상(동터오는 하나님의 왕국)**. 서울: 목회자료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Keil, C. F., & Delitzsch, F. (1992). **구약주석 사무엘상, 하**. 서울: 기독교문화사.(원전은 1989년에 출판)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년에 출판).
- Klein, R. W. (2004). 1 Samuel, WBC vol. 10. 서울: 솔로몬. (원전은 1983년에 출판)
- Longman, T., & Dillard, R. B. (2004). **최신구약개론**.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은 1994년에 출판)
- Michael, N. P. (2006).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Papero, V. D.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Peterson, E. (2007).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경기: 실만한 물가. (원전은 1999년에 출판)
- _____. (2013).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Wenham, G. (2006). **창세기(하)**. 서울: 솔로몬 (원전은 1987에 출판)
- Wilkinson, B. H. (1998).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서울: 디모데. (원전은 1983년에 출판)
- Wiersbe, W. W. (1986). **왕관을 잃지 마라**. 사무엘상에서의 사울 왕 생애. 서울: 십지. (원전은 1985년에 출판)

Wiersbe, W. W. (1990). **나침반 핵심성경연구1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서울: 종합선교나침반. (원전은 1968년에 출판)

Abstract

Bowenian Understanding on Anointed Saul's Undifferentiation Affections

Young Mi, Kim

Doctoral student in Christian Counseling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Si Eun, Bae

Doctoral student in Christian Counseling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Yong Ta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This research is a counseling study that illuminates Saul as an individual in a system, anxiety, inter-psychoic state, and his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by Bowen's theory. The method used for this research is an integration of the studies, the synthetic analysis of therapeutic real life event of Saul's story and Bowen's theor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xiety present within the system of Israel and Saul's inter-psychoic anxiety that had been transmitted through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Second, Saul had a psychoic structure of 'being small' and attempted to become 'big'. This Grounded self-idealization - manifesting 'himself', and projecting

his shame upon Jonathan. Third, Saul showed differentiation level of 'symptom recovery slow'. Lastly, Saul showed the high and the low of differentiation of self for a certain period. For those who are believers,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we need to be aware of the psychological issues within the family unit; we cannot resolve the issues of anxiety by fusion through a union with people; the action of pursuing goals temporally is not the path to true spiritual maturity.

Key Words

Saul, Self-Differentiation, Integration, Fused Relationship, Bowen,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